

동아시아 정상 각위

동아시아를 부전, 평화, 협력, 번영의 공동체로

근년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 중, 러, 한, 일 등 역외 주요국 18 개국이 모여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주권, 평등,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무력을 이용한 위협 또는 무력 불행사, 상이 의견 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호혜적 협력 등을 확인한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의견의 첨예한 대립과 분쟁, 무력 충돌이 산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간 대립과 긴장이 대규모 무력 충돌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보다 경제,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빈곤, 격차, 차별, 교육, 감염증, 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무역 면에서도 상호의존, 상호보완 할 것들이 전례 없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현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긴장관계의 장기존속이나 무역충돌 또는 전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핵 위협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역의 진정한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핵무기 금지조약을 위한 교섭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동아시아에 ‘부전, 평화, 협력,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우선 동아시아 정상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 관련국가의 공통 과제이며 즉시 협력, 원조가 가능한 자연재해, 감염증 예방, 환경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으로 협력해 관련국가의 상호신뢰를 조성하고 발전시켜 대화의 조건을 만들 것.
- 한층 더 신뢰를 조성해 대화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전쟁으로 발전시키지 않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범(규칙)을 만들 것.
- 대화에 따른 분쟁 해결, 무력충돌 방지에 그치지 않고 내정 불간섭, 무력 위협 또는 무력 불행사 등을 규정한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 조약(TAC)형 ‘동아시아 우호 협력 조약’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성명	주소

[취급 단체: 일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연대 위원회]

우 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2-11-7 제 33 규테이빌딩 4 층

전화) 03-5363-3470 FAX) 03-3357-6255